



# ‘KIA 홈런타자, 끝내주는 나지완’...10월7일 은퇴식

2008년 데뷔 때부터 KIA 유니폼만 입은 원클럽맨

2009년 한국시리즈 7차전 끝내기 홈런 주인공

현역 생활을 마무리한 나지완(37)의 은퇴식이 다음달 열린다. KIA는 “10월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펼쳐지는 KT 위즈와 경기에서 나지완의 은퇴식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은퇴식은 2009년 타이거즈 10번째 우승을 이끌었던 나지완의 활약을 떠올리며 ‘KIA의 홈런타자, 끝내주는 나지완’이란 주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나지완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사전 이벤트 접

수자 100명을 대상으로 30분 동안 사인회를 갖는다. 구장 중앙출입구엔 포효하는 나지완의 모습이 대형 통천으로 내걸린다. 이날 입장하는 팬 선착순 5000명은 나지완 사인 포토카드를 받을 수 있다. 오후 6시에는 그라운드 행사가 시작된다. 전광판을 통해 나지완의 활약상이 상영되고, 뒤이어 기념품과 쿠폰발 전달식이 진행된다. 이어 동판으로 특별 제작된 홈 플레이트와 유니

폼 액자 등 기념품 전달식이 열릴 예정이다. 경기 시작 전에는 나지완 가족이 함께하는 시구·시타 행사가 열린다. 나지완의 아들 현준 군과 아내 양미희 씨가 각각 시구·시타자로 나서고 나지완이 포수 자리에서 아내의 공을 받는다. 이날 선수단은 나지완의 29년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뛰는 KIA는 “동료와 후배 선수들이 하나돼 나지완의 마지막 경기를 대신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경기 후엔 본격적인 은퇴식 행사가 진행된다. 나지완은 고별사로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마지막 타석’ 퍼포먼스로 2009년 한국시리즈의 환희를 재현할 계획이다.

이어 나지완은 외야에서 팬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눈다. 본인의 주포지션이었던 좌익수 자리에 서면 나지완의 응원가 ‘나는 나비’의 원곡 가수 YB가 보내온 특별 영상이 전광판에 상영된다. 2008년 KIA 타이거즈에서 KBO리그에 데뷔한 나지완은 졸업 KIA 유니폼만 입은 원클럽맨이다. 통산 1472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7, 221홈런 862타점 668득점의 성적을 남겼다. 한편, 이날 입장권은 나지완의 2009년 한국시리즈 7차전 끝내기 홈런 세리머니 모습을 바탕으로 제작된다. 입장권 예매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다.

뉴스

## 제14회 구레전국여자천하장사 및 대학장사씨름대회 성료

임수정(영동군청) 작년에 이어 여자천하장사 등극...구레군청 엄하진, 올해 5번째 국화장사 올라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구레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제14회 구레전국여자천하장사 및 대학장사씨름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대회는 대학부 체급전 및 단체전, 여자부 체급전 및 천하장사전, 학생부 체급전으로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이번 대회의 꽃인 여자천하장사전은 무체급 경기로 매화급(60kg이하)부터 무궁화급(80kg이하) 선수들까지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여자천하장사전(무체급)’에서는 국화급 최강자 영동군청 임수정 선수와 무궁화급 최강자 거제시청 이다현 선수가 결승전서 맞붙었다. 이다현 선수가 들배지기를 시도해 첫 판을 가져갔으나, 임수정 선수가 들배지기과 밀어치기 기술을 사용하여 2:1 역전승을 거두었다. 이로 인해 임수정 선수는 작년에 이어 구레여자천하장사에 등극했다. 그 외 여자 1부 체급 장사에는 매화급(60kg 이하)에 김재오(고산군청) 선수, 국화급(70kg 이하)에 엄하진(구레군청)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2부 체급 장사에는 매화급(60kg 이하)에 노은수(경남) 선수, 국화

급(70kg 이하)에 김재민(부산) 선수, 무궁화급(80kg 이하)에 양현수(경북)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였다. 대학장사에는 경장급에 전성근(경기대) 선수, 소장급에 임수성(경기대) 선수, 청장급에 김민재(동아대) 선수, 용장급에 이준형(용인대) 선수, 용사급에 이태규(경기대) 선수, 역사급에 임수주(경기대) 선수, 장사급에 홍지훈(영남대) 선수가 장사에 올랐고, 대학부 단체전에서는 대구대가 경남대를 이기며 우승을 차지하였다. 구레군청 씨름단은 엄하진 선수가 올해 5번째 장사 타이틀을 획득했으며, 2020년부터 3년째 구레대회 국화급 장사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순호 구레군수는 “여자선수들이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민속 스포츠인 씨름을 발전시키고 대중화하는데 이같은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레군은 2009년 1회를 시작으로 14번째 여자천하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여자씨름의 메카로서 선수 발굴 및 육성에 힘써 씨름 저변 확대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구레·박진호 기자



류현진, MLB 서비스 타임

10년 채워...한국인 세 번째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5)이 미국 메이저 리그(MLB) 서비스 타임 10년을 채웠다. 류현진의 미국 에이전트인 보라스코퍼레이션은 27일(한국시간) 공식 SNS를 통해 류현진이 서비스 타임 10년째를 달성했다고 알렸다. 서비스 타임은 선수가 MLB 현역 로스터에 등록된 기간을 말한다. 172일을 채워야 1년을 인정 받는데, 경기에 뛰지 못하고 부상자 명단에 등재된 기간도 포함된다. 한국인 선수가 서비스 타임 10년을 달성한 건 ‘코리안 특급’ 박찬호, ‘추스트레인’ 추신수(SSG 랜더스)에 이어 류현진이 세 번째다. KBO리그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간 류현진은 2013년 빅리그에 데뷔했다. 첫 시즌부터 14승(8패)을 올리며 ‘코리안 몬스터’의 탄생을 알린 그는 올해까지 통산 175경기에 나서 75승45패 평균자책점 3.27의 성적을 냈다.



승격 확정된 광주FC

K리그2 역대 최다승·승점

안산에 3-0 완승...시즌 24승

일찌감치 프로축구 K리그2(2부) 우승을 확정하며 내년 K리그1(1부) 승격을 이룬 광주FC가 새 역사를 썼다. 광주는 26일 오후 7시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안산 그리너스와 하나원큐 K리그2 2022 41라운드에서 안드로, 박한빈, 두현석의 릴레이골을 앞세워 3-0 완승을 거뒀다. 이미 K리그2 우승을 확정해 강등 한 시즌 만에 K리그1 복귀에 성공했다. 역대 가장 빠른 잔여 4경기를 남기고 우승을 확정할 광주는 K리그2 역대 최다승과 최다승점 기록도 썼다. 광주는 24승9무4패(승점 81)다. 경남FC가 지난 2017시즌 기록한 한 시즌 최다 24승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당시 경남의 승점 79는 넘어섰다. 지난 14일 안양전 이후 약 2주 동안 달콤한 휴식을 취한 광주는 안방에서 우승과 승격을 자축하는 골 잔치를 벌였다. 전남 29분 안드로의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한 광주는 후반 9분 박한빈, 43분 두현석의 연속골을 앞세워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최하위 부산 아이파크는 라마스의 결승골을 앞세워 전남 드래곤즈에 1-0으로 승리했다. 서선욱기자

## 전남족구협회, 시·도대항 전국 족구대회서 종합 준우승 차지

전남족구협회가 제5회 대한민국족구협회장기 시·도대항 전국족구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전남족구협회(회장 장유신)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전남 진도아리랑 축구장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 참가해 종합 준우승과 함께 체전부(전라남도체육회) 우승, 여성체전부 준우승(전라남도체육회)과 3위(여수크러쉬), 임원부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체전부 준결승에서 전라남도체육회 팀은 생거전RUN 팀을 2: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 결승에서 강동구투원 팀을 만나 첫세트를 내렸으나 연달아 2세트를 이기며 2:1로 역전, 체전부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서 전라남도체육회 박늘음 선수가 최우수선수상, 백종환 감독이 최우수감독상을 수상했다. 여성체전부에서의 활약도 빛났다. 여성체전부에서는 전라남도체육회 팀과 여수크러쉬 팀이 본선에 진출하며 준결승에서 서로 겨뤘던 전라남도체육회 팀이 2:0으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으나 스카이엔젤 팀에 막히며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고, 여수크러쉬 팀도 공동 3위를 차지하며, 전남소속 팀이 준우승과 3위를 차지했다. 임원부에서는 전라남도(전남족구협회)팀이 전라북도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하며,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관내부에서는 완도고금스타 팀이 우승, 목포이룸JC 팀이 준우승, 영암월출 팀과 순천OK 팀이 공동 3위를 수상했고, 최우수선수상은 완도고금스타 팀의 문호 선수가 수상했다. 장유신 전남족구협회 회장은 “전남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해 뜻깊고, 우리 전남 소속 팀들이 좋은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전남 선수들이 이번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족구는 지난 1월 대한체육회 제8차 이사회를 통해 전국체육대회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전남GT 내달 1일 개막...레이스카 질주하는 서킷 걸어보자

영암군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서 개최  
그리드워크, 레이스카 선수 대화·사진

국내 최대 종합 모터스포츠 축제인 2022 전남GT가 다음달 1일과 2일 전남 영암군 코리아 인터내셔널서킷(KIC)에서 열린다. 전남GT를 대표하는 ‘전남내구’ 클래스와 국내 최상위 대회 ‘삼성화재 6000’ 클래스, 스포츠 프로토타입, 스포츠바이크400, 인퍼라GT 등이 열린다. 레이스카가 질주하는 서킷 위에서 펼쳐지는 특별 행사인 그리드워크가 열린다. 관람객들이 직접 서킷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기회는 이 시간이 유일하다. 레이스카를 비롯해 선수들을 직접 보며 얘기도 나누고 사진까지 찍을 수 있다. 특별 제작된 6000 클래스 스티커를 모으며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스티커 투어’ 행사가 열린다.



레이서를 꿈꾸는 어린이들이 카트를 직접 운전하며, 레이싱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전기카트존이 마련됐다. 또 어린이들을 위해 대형 에어바운스 미끄럼틀이 설치됐다. 실제 경기장을 그대로 구현한 레이싱 시뮬

레이터 게임으로 레이싱카를 몰고 서킷을 달려볼 수 있는 e슈퍼레이스 체험존도 마련됐다. 선수들이 운전하는 레이스카를 타고 서킷을 달려볼 수 있는 택시 타임 이벤트가 열린다. 영암=조대호기자

## “손흥민, 토트넘 역대 최고의 영입생 톱10” 英 매체

EPL 출범 이후 최고의 영입 10명 안에 들어... “능력과 호감도 갖춘 선수”

손흥민(30)이 현지 매체로부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출범 후 토트넘 홋스퍼 구단 최고의 영입생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영국 매체 풋볼러던은 27일(한국시간) 1992년 EPL 출범 이후 토트넘이 영입한 최고의 선수 10명을 소개했다. 손흥민은 테디 셰링엄(잉글랜드), 워르겐 클린스만(독일), 다비드 지놀라, 위고 요리스(이상 프랑스), 가레스 베일(웨일스), 루카 모드리치(크로아티아), 크리스티안 에릭센(덴마크), 무사 뎀벨레, 안 베르통언(이상 벨기에)과 함께 포함됐다. 이 매체는 “손흥민이 토트넘에 온 지 7년이 됐다”며 “그동안 토트넘에서 공식전 334경기에 출전해 134골 75도움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EPL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 됐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손흥민은 지난 시즌 모하메드 살라(리버풀)와 함께 EPL 공동 득점왕에 오르며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2015년 여름 레버쿠젠(독일)을 떠나 토트넘에 입단했다. 이후 매 시즌 성장한 그는 2021-2022시즌 EPL에서 23골을 터뜨려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을 거머쥐었다. 또 EPL 개인 통산 100호골까지도 단 4골만을 남겨뒀다. 이 매체는 “토트넘 구단 역사에서 능력과 호감도를 모두 갖춘 선수는 거의 없었다. 손흥민은 구단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18일 레스터시티와의 리그 경기에서 헤트트릭으로 시즌 마수걸이 득점에 성공한 손흥민은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에 합류해 9월 A매치를 치르고 있다. 지난 23일엔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코스타리카(2-2 무)와 평가전에서 극적인 프리킥골로 한국을 패배 위기에서 구했다. 벤투호는 27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카메룬과 두 번째 평가전을 갖는다. 뉴스